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하 영 희*

Ha, Young Hi

Abstract

Data were collected from 392 4th and 6th grade students by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re problem behavior was reported by 4th than by 6th graders and by boys than by girls; the gender difference was larger in 4th than 6th graders. Low school satisfaction, authoritative parenting, male gender, and higher age predicted problem behavior. Within group variables that predicted problem behavior were low authoritative parenting, low school satisfaction. Male gender, and low self-control in the 4th graders ; low self-control and school satisfaction in the 6th graders; low authoritative parenting and school satisfaction in girls ; and low school satisfaction, higher age, and low self-control in boys.

Key Words :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권위적인 양육태도(authoritative parenting), 학교 생활만족도(school satisfaction), 자기통제력(self-control)

※ 접수 2003년 4월 30일, 채택 2003년 6월 24일

* 교신저자 : 미국 네브라스카-링컨 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포스닥, E-mail : 72smile@dreamwiz.com

I. 서론

아동은 가정, 또래 및 학교로 구성된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조절하며 자신들의 환경에 적응해 간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동은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오늘 날 아동의 문제행동이 청소년 못지 않게 날로 증가해 가는(문화체육부, 2000) 지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덕교육의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행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아동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김선희, 2000). 아동의 문제행동은 청년기 및 성인기까지 심각한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Loeber & Hay, 1997; Pepler, King, & Byrd, 1991)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 발달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예측변인과 발달과정에 관심을 가져왔는데(김선남, 1994; 김선희, 2000; Marshal & Chassin, 2000) 다수의 연구자들은 아동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가정, 또래, 학교환경 및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가정환경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도덕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여인숙, 1984; 이봉선, 1989),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하여 적절한 행동과 적절하지 않는 행동을 알게 되며, 또 사회의 규칙과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학습하게 된다. Baumind(1990)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즉 권위적인 양육태도, 권위주의 양육태도

그리고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이다. 이 중 사회학습이론가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분야는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지지적이며 보살핌을 베푸는 맥락 하에서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권위적인 양육태도로써 권위적인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며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보다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을 더 촉진시킨다(Chen et al., 1997; 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실제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이론적 측면에서도 권위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하는 중요한 예언변인이 되는가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와의 교류는 아동의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래와의 접촉은 가정 이외의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은 물론 그렇지 않은 행동도 배우게 된다. 사회화 과정 중 특히 도덕성 발달에 또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Yussen & Santrock, 1982). 경험적 연구들은 또래수용도가 낮을 경우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짐을 밝히고 있으며(김선희, 2000; Vandell & Hembree, 1994), 또래지지와 공격성 간에는 부적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이어 학교환경 또한 아동의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환경으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의 적응은 아동발달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에 만족을 하지 않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며(한미현, 1996; Windle, 1992),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출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권윤아, 1997; 하영희, 2001).

가족, 또래 및 학교환경 외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역시 아동의 사회화에 중요하다(Kauffman, 1997).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아동들의 발달적 차이는 개인의 내적변인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환경에 대해 유연성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개인의 중요한 내적 변인으로 자기통제력을 들 수 있다(김선희, 2000).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충동성과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자제해야 하는 능력 즉 자기통제력이 요구된다(Bandura, 1991; Shaffer, 2000). 사회학습이론가들은 남이 보지 않거나 보상이 없어도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통제 능력 때문으로 보았으며, 사회화된 많은 행동들은 내적으로 통제된 결과로 보았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은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 및 사회화를 돕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위기적 환경 속에서도 문제행동을 덜 보이며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한다(Feldman & Weiberger, 1994). 하영희와 김경연(2003)은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자기 통제력을 보고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행동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각각의 관련변인들이 문제행동에 대한 중요성은 지적하고 있으나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또래, 학교변인이나

개인적 변인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더욱이 문제행동과 관련한 국내선행연구들(김애경, 2001; 심희옥, 1997)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년이 증가할수록 이들 문제행동이 증가함을 밝히고 있지만 서구의 경우 문제행동이 학년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어(Merrell, 1993),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여부를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재검증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년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금지행동과 관련된 관련변인들에 대한 설명력의 차이는 개인의 문제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또래지지,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력과 어떻게 관련을 갖는지를 규명하고, 학년 및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 아울러 문제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학년(연령)별·남녀별로 탐색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회적 관계 및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위의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문제행동과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또래지지,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력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문제행동은 아동의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학년, 성별, 권위적인 양육태도, 또래지지,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력 중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해주는 변인들은 학년 및 성별간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 392(남 : 200, 여 : 192)명이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0대이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0대이었고,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88% 이상이 고졸 이상이었으며, 어머니의 87%가 고졸 이상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49%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의 경우 37%가 전업주부이었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문제행동 척도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경연과 하영희(1998)의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아동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경연과 하영희(1998)의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척도는 총 19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교사와 의논한 결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내용과 아동들에게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행동 13문항을 추출하여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문항 내용은 아동들의 일상적인 위반 행동으로 '교사 및 부모에게 반항하기', '컨닝하기' 및 '공중도덕 지키기' 등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일반적인 문제행동만을 측정한 관계로 각 행동의 점수에 가중치를 주지는 않았다. "부모와 교사에게 반항을 합니까?"와 같은 문항에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자주 그렇다"의 5점의 응답 범주를 가지며 점수범위는 13점에서 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규칙위반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6이었다.

2)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측정을 위하여 Lamborn et al.(1991)의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권위적인(authoritative) 양육태도 영역인 9문항을 본 연구자가 국내 아동의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나를 도와 줄 것이다"와 같은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척도의 점수 범위는 9점에서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엄격하면서도 애정적임을 지각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 .63이었다.

3) 또래지지

아동이 지각하는 또래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은영(1998)이 사용한 정동화(1996)의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당신의 또래들은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잘 이해합니까?"와 같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으로 척도의 점수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 .87이었다.

4)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는 김희화(1998)가 사용한 생활만족도 척도를 참고로 하였는데 생활만족도

척도는 Campbell, Converse & Rodgers(1971)가 미국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7점 응답범주의 한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척도는 각종 학교학동(동아리, 학생회, 체육대회 행사 등), 교사관계, 학교시설, 학업성적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만족하지 않음’의 1점부터 ‘만족함’의 7점 범위로 평가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자기통제력

아동의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희(2000)가 Humphrey(1982)의 ‘Chilfren’s Self-control scal’에서 5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어떤 행

동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의 5점의 응답범주를 가져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 .88이었다.

3.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2002년 6월 17일부터 6월 22일 사이에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400부이었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총 39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WIN 1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이원변량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변인들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행동은 관련변인들 모두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및 또래지지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은 낮았다.

<표 1> 문제행동과 관련변인간의 관계 n=392

	1	2	3	4	5
1. 자기통제력	1				
2. 권위적인양육태도	.25*	1			
3. 또래지지	.37*	.42*	1		
4. 학교생활만족도	.31*	.20*	.21*	1	
5. 문제행동	-.22*	-.34*	-.18*	-.36*	1

*p<.01

2. 학년(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을 보면, 아동의 문제행동은 6학년이 4학년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어린 아동보다는 나이가 많은 아동이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3>에서 보듯이 문제 행동에서 학년과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1, 385)=8.98, p<.01, F(1, 385)=11.42, p<.001) 동시에 상호작용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385)=6.11, p<.05). 즉 6학년이 4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문제행동수준이 더 높았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미하게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차는 4학년이 6학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년과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제행동	4학년		6학년					
	남(n=87)	여(n=97)	남(n=111)	여(n=94)				
	M	SD	M	SD				
	28.97	7.94	25.18	5.09	29.31	6.52	28.72	5.47

<표 3> 학년과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량분석결과 n=389

문제행동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학년(A)	362.49	1	362.49	8.98**
	성별(B)	461.34	1	461.34	11.42***
	A×B	246.63	1	246.63	6.11*
	오차	15548.36	385	40.39	

*p<.05 **p<.01 ***p<.001 미응답자 : 3명

3.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이 연구대상 전체와 아동의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학년, 성별, 자기통제력,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또래지지 및 학교생활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방식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n=392

	독립변인	B	β	R ²	F
전체	학교생활만족도	-2.04	-.36***	.13	55.46***
	권위적인양육태도	-.331	-.28***	.20	48.02***
	성별	-1.83	-.14***	.22	35.84***
	학년(연령)	1.76	.13**	.24	29.66***
4학년	권위적인양육태도	-.47	-.45***	.21	44.76***
	학교생활만족도	-2.29	-.36***	.33	42.28***
	성별	2.75	-.20**	.37	33.08***
6학년	자기통제력	-.21	-.13*	.38	26.40***
	자기통제력	-.56	-.41***	.16	39.96***
	학교생활만족도	-.93	-.18**	.19	24.19***
남아	학교생활만족도	-2.35	-.56***	.31	85.12***
	학년(연령)	2.73	.24***	.37	54.84***
여아	자기통제력	-.18	-.13**	.38	38.69***
	권위적인양육태도	-.44	-.39***	.15	32.59***
	학교생활만족도	-1.25	-.16**	.17	19.53***

*p<.05 **p<.01 ***p<.001 성별 : 남=1, 여=0

<표 4>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문제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학교생활만족도였고, 그 다음이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성별 및 학년 순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이 문제 행동의 전체 변량 중 24%를 설명하였다. 학년에 따른 효과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학년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4학년의 문제행동에서는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고, 다음이 학교생활만족도, 성별 및 자기통제력 순으로 나타나 부모변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들 변인이 4학년 문제행동의 전체 변량 중 38%를 설명하였다. 6학년의 경우에는, 자기통제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그 다음이 학교생활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이 문제행동의 전체 변량 중 19%를 설명하였다. 남·녀 성별에 따른 뚜렷한 관련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남

아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 학년 및 자기통제력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들 관련변인이 문제행동의 전체 변량 중 38%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환경변인에서 부모변인과 또래변인은 남아의 문제행동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여아의 경우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와 학교생활만족도가 여아의 문제행동을 예언하는 주변인으로 나타나 남아와 차이를 보였다. 이들 관련변인이 문제행동의 전체 변량 중 17%를 설명하였다. 또래변인은 여아의 문제행동을 예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변인들을 밝히는 일은 아동의 문제행동은 물론 부모 및 또래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매우 의미있는 시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392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환경변인인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또래지지 및 학교생활만족도와 개인변인인 자기통제력의 상대적 영향력을 조명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을 미연에 예방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발달과 적응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문제행동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자기통제력 및 또래지지와 부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연구결과는 여고생의 가출 원인중의 하나로 학교생활 불만족을 발견한 권윤아(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일반

적으로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면 학교에 부적응적이다(문화체육부, 2000). 학교생활에 비적응적인 학생은 교사와 또래로부터 외면당하기가 쉬우며 학교생활에 적응적인 학생들에 비해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다(최정곤, 1998; Compass, Maderene & Fondacaro, 1988). 다음, 부모의 양육태도가 엄격하고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귀납적으로 성숙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다른 부모의 자녀들보다 공격행동을 적게 하거나 책임감이 강하다는 선행연구 결과(Maccoby, 1980; Martin, 1975)에 의해 지지된다.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는 부모의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

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자기통제력이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선행연구들(김선희, 2000; 김현숙, 1998)과 일치한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을 규제하고 절제하는 것은 사회화의 필수이며 또 타인과 만족할 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흥미를 지연 혹은 억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도덕성 발달 및 사회적응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기통제 향상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자기통제 훈련이 행동수정에 유효하였다는 선행연구들이(김희영, 1999; 정영자, 1998) 이를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또래지지와의 관계에서도 또래 지지가 높은 아동이 문제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연구결과는 또래지지와 문제행동간의 부적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경주, 1997). 또래지지가 낮은 아동은 또래관계를 맺고자 하지만 또래수용도가 낮아 또래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 같은 정서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기술을 개발할 기회의 박탈로 인해 더욱 부정적인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년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은, 6학년이 4학년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어린 연령일수록 사회의 규칙 혹은 부모의 권위를 수용하여 사회규칙에 순응적이라는 Piaget의 도덕성 이론에 지지되며, 또 연령이 높을수록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Klartri, 1996)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6학년이 4학년보다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6학년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청소년 진입기

로써 이에 따른 정서적·발달적 특성과 관련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문제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거짓말을 더 적게 하거나 공중질서를 잘 지킨다는 연구결과(하영희, 박혜원, 1996; 하영희, 김경연, 2003)와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금지하는 성 경험, 흡연 및 음주 등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보고한 김현숙(1998)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여아에게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강조하는 한국 문화의 사회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우리 사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아가 가정 혹은 사회의 규칙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남아에 비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이는 결국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어떤 성역할로 사회화되느냐에 따른 사회화의 차이가 문제행동에 대한 성차를 만들어 내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맥락에서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아와 여아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아동들의 도덕교육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력이 있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4학년의 경우, 부모의 엄격 애정형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다. 6학년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하였다. 이런 결과는 학년이 높은 6학년의 경우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유동성 변인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의식의 증대

및 청소년기 진입 시기의 발달적 특성상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은 줄어들어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변인들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 통제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정적인 해석은 무리이므로 이와 관련한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보다 정교한 해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남아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하였고, 여아는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하여 만족을 많이 할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여아의 경우 여전히 부모가 영향력을 보이지만 남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연구결과 역시 전통적으로 여아의 행동에 대하여 부모가 더 많은 간섭과 통제를 보이는 한국문화의 사회화에 대한 해석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녀에게 엄격하면서도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적응 및 건전한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Stenberg, Elmen., & Mounts, 1989)에 의해 지지된다. 그리고 권위적인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보다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자녀로 양육시킨다는 연구(정현희, 1990; Eisenberg & Valiente, 2002)와 맥을 같이한다. 부모의 엄격하고 애정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도덕적 모델을 제공하며, 자녀로 하여금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

하며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위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문제행동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학교나 지역사회는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실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기반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은 학교와 가정간의 유기적 연계를 활성화시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생활만족도가 아동들의 문제 행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교생활만족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하영희(2001)의 연구와 일치하며 학교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된다(Piekarska, 2000). 한편, 자기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기통제력이 건강에 위해되는 흡연과 음주에(김현숙, 1998) 그리고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각종 문제행동에(하영희, 김경연, 2003)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자기통제가 사회가 금지하는 행동은 하지 않게 하는 억제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행동발달을 위하여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재확인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래지지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예언하지 않아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힌 하영희(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동기는 청소년기만큼 또래망이 확충되지 않아 또래집단의 영향보다는 사회적으로 권위적인 환경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들에게 합법적인 사회의 권위를 학습하게 하는 부모 및 교사와 같은 성인과 동등한 권위를 지향하는 또래 및 문제행동간의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나와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환경변인과 개인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조명하였다. 하지만 환경변인과 개인변인들은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중재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효과를 규명함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하는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문제행동의 개인적 발달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반복측정을 요구하는 종단적 설계가 이루어져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감소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권윤아(1997). 실업계여고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및 가출유형분석-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변인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 하영희(1998). "사회화요인들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친사회적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9(2), 69-83.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 관련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존증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3), 271-285.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희영(1999). 감성지능에 입각한 자기통제 프로그램이 아동의 충동성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화체육부(2000). *청소년 백서*.
- 신은영(1998). 한국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모델에 관한 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1.
- 여인숙(1984). 아동의 가정환경과 도덕적 판단능력 및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0.
- 이경주(1997).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봉선(1989).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도덕판단 및 그 관계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정영자(1998). 자기통제훈련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이의 정서적 특성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곤(1998).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스트레스 및 비행.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 박혜원(1996). 귀인경향에 따른 아동의 도덕성 발달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3), 271-282.

- 하영희(2001).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과 관련변인간의 관계연구-권장행동과 금지행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김경연(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변인 및 환경변인과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 : 사회 및 성격*, 16(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 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andura, A.(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illiam & Jacob(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 Theory, N.Y : Hillsdale, 45-96.
- Baumird, D.(1990).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Advances in Family Rese - arch*. vol, 2. Hillsdale, N. J : Erlbaum.
- Compass, B. E., Madarne, R. L., & Fondacaro, K. M.(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 - 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05-411.
- Eisenberg, N., & Valiente, C.(2002). "Parenting and childrens prosocial and moral development."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2nd ed., pp. 111-142).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Feldman, S. S., & Weinberger , D. A.(1994). Self-restraint as mediator of family inquent behavior :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 195-211.
- Hinshaw, S., P.(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 - cence : casual & relationship underlying mechanism. *Psychological Bulletin*, 111, 127-155.
- Kauffman, J. M.(1997).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6nded.). New Jersey : Prentice Hall, Ice.
- Klatri, P. (1996). Aggression, peer vitimization, and social relationships among rural indian yout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Lamborn, S.D., Mounts, S., Steinberg, L., & Dornbusch, S. M.(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rian, indulgent,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oeber, R., & Hay, D. F.(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Maccoby, E. E.(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 - logical growth and the parent, child relationship*. N. Y. : Harcourt Brace Jovanovich.
- Marshal, M., & Chassin, L.(2000). Peer influence on adolescent alcohol use : The moderating of parental support and disciplin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4(2), 80-89.
- Martin, B.(1975). Parent-child relations. In F. D. Horowitz(Ed). *Review of children development research*, Vol. 4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rrell, K. W.(1993). *Test Manual for the School Social Behavior Scales*. Brandon. V. T : Clinical Psychology Publishing Co.
- Pepler, J., King, G., & Byrd, W.(1991). A social cognitively based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for aggressive children.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 Erlbaum.
- Piekarska, A.(2000). School dtress, teacher's abusive behaviors, and children's coping strategies. *Child abuse & Neglect*, 24(11), 1443-1449.
- Steninberg, L., Elmen., J., & Mounts, N.(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logic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
- Shaffer, R.(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Wadsworth.

Vandel, D. L., & Hembree, E.(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Windle, M.(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 Psychology*, 28(3), 522-530.

Yussen & Santrock.(1982). *Child development*. Dubuque, Iowa : Wm. C. Brown Co.